

IPO는 2단 추진로켓... 10억弗 'AI·구독' 등 전방위 투자

(공모자금)

한국의 아마존 쿠팡, 뉴욕에 가다

고객 육인 기초, 상장 후에도 지속
광역 물류센터 건설·고용 확대 추진
쿠팡이츠 확대·택배사업 투자 단행

쿠팡이 꿈꿔온 '한국판 아마존' 실현이 머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달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쿠팡은 상장 후 기존 유통과 물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사업 추진에도 과감한 투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 A 보통주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조만간 기업공개(IPO)를 실시한 뒤 3월 중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블룸버그는 쿠팡의 기업가치를 300억달러(약 33조원)로 내다봤지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장 후 쿠팡의 기업가치를 최대 500억달러(약 55조원)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기업가치가 500억달러에 달할 경우 쿠팡에 전문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학적 금액(30억달러)을 투자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90억 달러(21조원)에 이르게 된다.

◆물류 인프라 확보 우선

쿠팡은 SEC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이번 상장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실제 조달 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인 자금은 국내 물류시설 확충과 연구개발(R&D)에 쓰일 전망이다. 쿠팡이츠와 로켓프레시, 택배

사업 등 신사업 확대와 물류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자금 확보는 필수다.

먼저 쿠팡은 광역 물류센터 7개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류센터를 추가하면서 2025년까지 5만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소프트뱅크로부터 수혈받은 30억달러도 국내 150개 물류센터 건립에 쓰였다. 쿠팡은 주문 다음날 바로 배송되는 '로켓배송'과 신선 식품을 익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는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거래액을 매년 늘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정착하면서 매출액은 두배로 키웠고, 적자 폭은 줄었다.

쿠팡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매출액은 119억733만달러(약 13조250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62억7326만달러(7조15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손실액은 5억2773만달러(약 5805억원)로 전년 6억4383만달러(7082억원)보다 1200억원 줄었다.

◆고객 '육인' 위한 전방위 투자 단행

쿠팡은 물류 투자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왔다.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선보이고, 간편결제 쿠폰을 '쿠팡페이'로 분사시켰으며, 지난해 말에는 월 2900원에 로켓배송부터 OTT서비스인 쿠팡플레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와우 멤버십'을 내놓았다.

이는 고객 육인(lock-in)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480만명에 달하는 활성

고객(3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쿠팡에서 상품을 주문한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쿠팡의 활성 고객 수는 2018년 4분기 916만명, 2019년 4분기 1179만명, 그리고 지난해 148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신규 고객도 유지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 육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기초는 상장 후에도 이어갈 전망이다. 쿠팡이츠 점유율 확대와 택배 사업에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업에 뛰어 들 가능성도 보인다. AI와 구독 플랫폼이 결합하면 이것만큼 고객 락인 효과를 보장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마존은 2014년 '에코(echo)' 서비스를 론칭, 알렉사(Alexa)라는 음성 인식 시스템과 연결해 일기예보, 일정관리, 화상 통화 등을 제공했다. 쇼핑몰답게 간단한 음성명령으로 쇼핑도 할 수 있게 했다. 쿠팡이 아마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면, 이러한 사업에도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상장 직후 변동성 예측불가... "ETF 통한 간접투자 매력적"

쿠팡美 증시 직상장

직접 공모주 청약참여 사실상 불가능
ETF, 주식형펀드보다 환매 자유로워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상장을 추진하면서 '저학개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 지구 등 투자 방법이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조언했다.

쿠팡은 이번 상장을 통해 10억달러

금융을 잘하는 신한금융 그룹의 **신한카드**
교육비+입사축하금 350만(경력자 우대)
고객센터PDS(오토콜) 공채 2명
"지능화 발전"으로 통화성공률 효과 UP

- ▶ 지원자격: - 신입 / 경력 - 경력자우대(전직장소득보장)
- ▶ 담당업무: 상담 동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업무
- ▶ 지원접수처: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0길11 더프라임빌딩 23층 신한 융산센터 2실

※ 근무시간: 10시~5시(주5일근무) ※

FAQ

1. 상담업무를 해본적이 없는데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한번은 처음입니다. 회사에 교육담당자와 매니저가 단계적으로 교육레드와 소득증거를 최우선으로 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비 350만(경력자 우대)
- 교통비, 주택세, 대학생 2차내 학자금(연44)
- 1~18개월차까지 정액급여지원
- 매년 적립금 지급제도 운영
3.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 1년차평균: 월200~250만원대
- 2년차평균: 월300~400만원대
- 상위영향: 업계최고 고소득발상
* 수입은 내가 알고싶은 만큼 묻는 능력과 출습니다
4. 다른 회사도 많은데 꼭 신한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신한카드 마케팅 동의고객 대상으로 보합상품을 통해 고객의 행복에 대한 가치를 판매하고 가치를 사는 일을 하며 성사율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인크루팅/육성 전문실장: 임연실 (문자환영)
010-3043-3574

<IPO 투자 ETF>

ETF명	티커	투자대상	운용보수 (%)	수익률		
				1달	3달	1년
First Trust U.S. Equity Opportunities ETF	FPX	미국 IPO	0.58	11.03	25.48	51.27
Renaissance IPO ETF	IPO	미국 IPO	0.60	13.76	32.57	112.65
First Trust International Equity Opportunities ETF	FPXI	미국 외 IPO	0.70	6.85	21.83	78.36
First Trust IPOX Europe Equity Opportunities ETF	FPXE	유럽 IPO	0.70	2.32	17.15	38.25
Renaissance International IPO ETF	IPOS	미국 외 IPO	0.80	6.48	20.45	59.05

(수익률: 2021년 2월 15일 기준)

/인베스팅닷컴

규모의 금액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알리바바그룹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외국회사 기업공개(IPO)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국내 투자자가 직접 미국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장 후 이들 기업을 직접 매수하거나 연관된 ETF,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ETF는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주식형펀드보다 환매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5일 "IPO 기업들은 상장 직후에는 초기 변동

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ETF를 통한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해외 공모주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르네상스 IPO ETF(Renaissance IPO ETF), 퍼스트 트러스트 U.S. 오퍼튜니티스ETF(First Trust U.S. Equity Opportunities ETF), 퍼스트 트러스트 인터내셔널 에퀴티오퍼튜니티스ETF(First Trust International Equity Opportunities ETF) 등이 있다.

쿠팡은 상장신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 규모도 공개했다. 매출액은 13조 1915억원(119억733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8%나 성장했다. 영업적자

는 5817억원(5억2773만달러)을 기록해 전년대비 1277억원 규모가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에 힘입어 흑자 전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김명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올해 쿠팡은 매출액 18조6000억원, 영업적자 1689억원을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수수료 수익 증가와 택배단가 하락으로 오는 2022년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출시한 '로켓제휴'라는 풀필먼트 서비스(물품 보관·포장·배송·재고 관리를 총괄하는 통합 물류관리

3조 투자한 손정의, 6년만에 20조 '잭팟'

<소프트뱅크 회장>

쿠팡 성장 가능성에 과감한 투자

쿠팡에 지금까지 3조원을 투자한 손정희(孫正義·손정의·사진)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번 쿠팡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으로 또 하나의 대박 신화를 써내려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에 월스트리트저널, 포브스 등의 외신들은 쿠팡의 이번 상장이 500억 달러(55조 2000억원) 규

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손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2015년과 2018년 두번에 걸쳐 쿠팡에 약 27억 달러(약 3조원)를 투자했다. 쿠팡은 비전펀드의 투자액으로 국내 30개 도시에 150여개 물류센터를 짓고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갔다.

이번 상장으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보유한 쿠팡 지분 가치는 185억달



리(약 20조3500억원)에 달한다. 투자를 만류하던 적자 기업 쿠팡의 성장 가능성을 본 손회장의 확신이 빛을 본 것. 손 회장은 쿠팡이 매년 적자

를 보일 때도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라고 평가해 왔다.

소프트뱅크그룹은 투자한 기업들의 상장이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주가가 하

락해 지난해 1분기 일본 기업 역사상 분기 최대 적자인 1조4381억 엔(약 15조 3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분기부터 'V자 반등'에 성공해 소프트뱅크그룹은 전년대비 21배 급증한 1조1719억 엔의 순이익을 올리며 지난 4분기 역대 최고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손회장은 2021년 4월 1일자로 소프트뱅크 회장직에서 물러나 '회장직 이사'로만 남는다. 1981년 소프트뱅크를 창업한지 꼭 40년만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